

##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가 EFL 학습자들의 영어 듣기에 미치는 영향

전은경  
구덕고등학교

**Jeon, Eunkyong. (2011). The Effects of shadow reading on EFL learners'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Modern English Education*, 12(4), 377-39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hadow reading on Korean high school students'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To this end, an experiment had been carried out into both an experimental group and a control group for five months in second year EFL Korean high school students. The groups were then assigned to one of three language proficiency groups: advanced, intermediate, and low. While the control group (Non-shadowing Group) was asked to answer to the questions or fill in the blanks of the listening scripts as the conservative ways of teaching and learning of English listening, the experimental group (Shadowing Group) was required to listen to a taped conversation as they read aloud the transcript of the tape and follow English tone and intonation patterns, stress, and pronunciation in native English speech. This study raises two questions. First, is ther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listening comprehension between the two groups? Second, is there a meaningful difference in listening comprehension among three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groups of the shadowing group?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dvantages of shadow reading activity in listening comprehension to provide students with less threatening learning environment and promote students' English listening skill.

**[shadow reading/listening comprehension/listening process/English language proficiency/그림자처럼 따라 읽기/듣기 이해력/듣기 과정/언어 수준]**

### I. 서론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영어의 네 가지 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균형적으로 교수·학습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교수·학습 과정에 미치는 환류 효과가 매우 큰 한국에서의 고등학교 영어 교육은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네 가지 기능의 균형적인 지도보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대학수학 능력시험의

외국어 영역 (영어)에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크게 듣기·어법·어휘·독해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것으로는 네 가지 영어 기능을 균형적으로 함양시키는 데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라는 학부모와 학습자의 실질적인 요구를 수업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외국어영역 (영어) 성적 향상이 고등학교 영어 수업의 주 목적이 되었다. 많은 영어 교사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외국어영역 (영어) 성적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전략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영어 수업 시간이 독해나 어법, 어휘 지도에 사용되고 있어 듣기에 대한 지도 및 전략은 부족한 실정이다.

듣기란 언어 학습 과정 중에서 핵심적인 기능이다. 모국어를 배우는 아동의 언어 발달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듣기 입력에 충분히 노출되어야 한다. 또한 청자는 성공적으로 언어를 듣기 위해서 화자가 전달하는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 화자의 의도가 단지 발화된 말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자는 전달하는 내용에 담긴 다른 요인들을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듣기는 수용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상호작용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실제 고등학교 영어 교육 현장에서의 듣기 기능은 타 기능에 비해 수동적인 기능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수업 중에 음성 자료를 반복 청취 하거나 대본의 빈칸을 채워 넣는 방식의 수업을 해왔다. 이러한 방식의 수업은 능동적이고 복잡한 듣기 과정의 원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며, 학습자가 하나하나의 소리를 다 듣고 나서 단어의 뜻을 이해한다고 간주하고 진행되는 단편적인 수업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어 듣기 이해력 향상을 위한 보다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영어 듣기 이해력 향상에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 중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방법이 있다.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는 듣는 내용을 단순하게 따라 읽는 것이 아니라 발음, 속도, 억양, 리듬, 강세, 감정 등을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 읽는 것이다. 이 방법을 통해 학습자들은 의미 단위별 단락 청취를 할 수 있고 듣기 기능과 말하기 기능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어 단어 및 구문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확성과 유창성 모두에 초점을 두는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할 수 있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외국어영역 (영어) 듣기 실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방법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 과제 1.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를 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듣기 이해력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 과제 2.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가 듣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이 언어 수준의 차이 (상·중·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듣기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듣기 과정을 설명하는 상향식 듣기 과정, 하향식 듣기 과정, 상호작용적 듣기 과정을 알아본다. 또한 한국 EFL 학습자들이 영어 듣기를 어려워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듣기 교수·학습 시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방법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며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와 영어 듣기 이해력 의 관계 및 언어 수준에 따른 효과 여부를 선행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다.

### 1. 듣기의 중요성

예전에는 듣기를 수동적인 것으로 파악한 것에 반해, 오늘날에는 의사소통능력을 강조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영어를 듣고 말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지면서 듣기를 더 이상 수동적인 과정으로 보지 않는다.

1990년대부터 언어 교수에서의 듣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듣기 수업은 문법 구조와 새로운 어휘 항목을 의사소통적 담화 내에서 맥락화해서 가르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이미 1970년대 초반부터 듣고 이해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 과정임을 인식하고, 듣기가 의사소통, 특히 말하기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해 왔다 (Pimsleur & Quinn, 1971). 실제 생활에서 듣기가 차지하는 평균 비율을 살펴볼 때도 듣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 듣기의 비율은 말하기의 두 배, 읽기의 네 배, 쓰기의 다섯 배 이상이다 (Rivers, 1981; Weaver, 1972). Nord (1980)도 듣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청취력 (listening fluency)의 발전이 언어 습득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과정이며 언어 능력을 획득했다는 좋은 표지가 된다고 주장했다. 듣기의 과정에 대해서 Rivers (1980)는 창조적 과정, Rost (1990)는 구성적 과정, Morley (2001)는 역동적 과정이라고 본 것에도 많은 학자들이 듣기의 중요성을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은 학습자가 듣기와 읽기를 통한 이해 가능한 입력에 노출되었을 때 일어난다 (Krashen, 1985, 1989). 하지만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은 입력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입력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연구가들은 입력의 내재화를 위해 학습자가 취하는 정신적 처리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학습자가 원어민과 같은 문법적인 정확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언어적인 자료를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Swain, 1985). 즉, 중요한 것은 단순히 다량의 입력에 노출되는 것만이 아니라 해당 입력을 나름대로 소화시켜 내재화시키는 것이며, 듣기와 읽기를 통한 이해 가능한 입력을 말하기와 쓰기를 통한 출력으로 연결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언어 학습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 듣기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습자 모두 듣기가 수동적인 기능이 아닌 특별한 관심을 요구하는 능동적이며 수용적인 기능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듣기 기능을 연습하는 것 또한 말하기·읽기·쓰기 기능을 연습하는 것만큼 노력이 요구된다.

## 2. 듣기 과정

언어 교수 및 학습에서 듣기 과정은 크게 상향식 처리 과정, 하향식 처리 과정, 상호작용적 처리 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Nunan (1998)은 언어 교수에서의 듣기 과정을 상향식 처리 과정과 하향식 처리 과정으로 구분한다. 상향식 처리 과정에서 듣기는 소리를 해독하는 과정이며, 음소와 같은 가장 작은 의미 단위에서 전체적인 텍스트까지 단일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 따르면, 음소 단위가 해독되고 함께 연결되어 단어를 형성하며, 단어가 함께 연결되어 구를 형성하고, 구는 또 다시 발화를 형성하며, 발화는 의미 있는 완전한 텍스트를 형성한다. 즉, 듣기 과정은 소리 신호, 단어, 구, 문장으로 나아가는 단일 방향이며 의미 자체는 가장 나중에 도출되는 마지막 단계이다. 반면에, 하향식 처리 과정은 들은 내용을 단서로 사용해서 화자가 의미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구성 또는 재구성하는 것으로, 이러한 구성 또는 재구성 과정에서 청자는 자신이 들은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듣기가 발생하고 있는 맥락과 상황에 대한 사전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상향식 처리 과정은 일반적으로 소리, 단어, 억양, 문법적 구조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향식 처리 과정은 스키마의 활성화, 의미 유추, 전반적 이해, 해당 텍스트 해석 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전의 듣기 교수·학습은 상향식 처리 과정을 전부로 파악했으나, 오늘날은 하향식 처리 과정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듣기 과정에서는 두 가지 처리 방식 모두가 담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처리 과정만 일어나거나 우세한 것보다 상향식 처리 과정과 하향식 처리 과정이 모두 일어날 때 가장 효과적인 듣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의 수준이나 듣기의 목적에 따라 어떤 방식을 강조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하겠지만, 듣기 과정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동시에 일어나는 만큼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해서 교수·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Carrell과 Eisterhold (1987), Rumelhart (1980)는 이 두 가지 과정을 함께 상호작용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상향식 처리 과정을 통해서 입력된 정보가 청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기대와 일치할 때 하향식 처리 과정에 의해서 듣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호작용적 처리 과정으로 듣기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 처리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Clark & Clark, 1977; Richards, 1983).

첫째, 청자는 들은 내용을 그대로 처리하여 단기 기억 속에 하나의 이미지를 파악한다. 이런 이미지는 들은 내용 속에 있는 구, 절, 연결어, 억양, 강세 등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둘째, 청자는 들은 내용의 유형 (예를 들어, 연설문, 대화, 라디오 방송 등)을 결정한다.

셋째, 청취한 내용의 유형 파악을 통해 화자의 목적, 문맥, 내용 등을 유추한다.

넷째, 해당 문맥과 연관된 배경 지식 또는 스키마를 회상한다.

다섯째, 청자는 들은 내용의 표면적 의미를 파악한다. 대개 표면적 의미와 의도한 의미가 일치하는데, 시간을 좀 내어 줄 수 있는가 하는 “Do you have time?”과 지금 몇 시인지를 묻는 “Do you have the time?”이라는 표현을 예로 들어 볼 때, 상담을 원하는 학생이 교사에게 “Do you have time?”이라 질문한 경우 표면적 의미와 의도한 의미가 일치한다. 그러나 우연히 버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Do you have time?”이라고 질문한 경우 표면적 의미는 “시간 있습니까?”이지만, 화자가 의도한 의미는 “지금 몇 시입니까?”이다.

여섯째, 청자는 화자가 의도한 의미를 파악한다. 위의 예와 같이 표면적 의미와 화자가 의도한 의미가 다를 경우, 청자는 화자가 의도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청자 자신이 인식한 의미와 화자가 의도한 의미를 일치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다.

일곱째, 청자는 청취한 내용을 단기 기억에 저장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 기억에 저장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즉각적으로 답변을 해야 할 경우는 청취한 내용을 단기 기억에 저장해야 한다. 반면에, 강의를 청강하는 경우에는 청취 내용을 장기 기억에 저장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청자는 의미 전달에 사용되었던 언어 형태는 삭제하고 중요한 정보만을 개념적으로 기억한다.

이상 살펴본 것과 같이, 듣기 이해는 분명히 상호작용적 처리 과정이다. 이러한 듣기 처리 과정은 학습자의 듣기 목적, 학습자의 언어 수준, 답변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효과적인 듣기 교수 기법의 전반적인 원리, 특정 듣기 교수 기법 및 실시 시기 등을 고려해서 접근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상향식 처리 과정으로 세부 내용 및 상용구를 집중해서 듣고 암기하는 집중적이고 선택적인 듣기 활동을 활용해 볼 수 있다. 그 다음 하향식 처리 과정으로 들은 내용의 주제와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주어진 지문에 대해 답을 하는 포괄적 듣기 활동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에게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 이 방법은 상향식 처리 과정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수동적으로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들은 내용을 듣기 대본을 보면서 녹음된 속도와 유사한 수준까지 따라 읽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결국 하향식 처리 과정을 촉진시켜 주어진 지문에 대해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풍부한 언어 지식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한국 영어 교육 상황이 영어에 대한 노출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EFL 상황이며 학급당 학생수가 많아 과밀 학급을 이루고 있고 학습자들이 시험에 대해 높은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고 비판을 받

는 등의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형의 상호작용적 듣기 수업은 한국 영어 교육 상황에 접근 가능할 것이다.

### 3.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아이들은 모방을 통해 말을 배우기도 한다. Kule과 Meltzoff (1996)에 따르면 아기는 태어난 지 12주 만에 모음을 그대로 모방한다고 한다. Brown (2007)은 모방 (imitation)은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전략이며, 특히 반복 (echoing)이 초기 언어 학습에서 음운론을 습득할 때 중요한 전략이라고 언급한다. 이때의 모방은 의미 자료보다는 음운 자료에 집중해서 표층 구조를 모방하는 것으로 행동주의 언어 습득 이론과 일치하며 언어 습득 초기 단계에 적절한 학습 방법이다. 또한 들리는 소리의 의미나 내용에 대한 이해보다는 단지 그 소리만을 되풀이 (repetition)하는 것으로 한국에서의 많은 고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 지금껏 사용해 왔던 기계적인 반복 연습 (drills)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언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비단 표층 구조를 모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인식하는 것, 즉, 심층 구조를 알아가는 것이며 심층 구조를 모방할 수 있어야 성공적인 모방자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언어를 학습하는 것은 그 언어 체계와 의미 구조를 모방하는 것이다.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 (shadowing)는 화자의 말을 단순하게 되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점에서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연습하는 모방 (imitation)과 구별된다. Nye와 Fowler (2003)는 모방은 화자의 발화 습관을 배제한 음성 단계를 따라 하는 것인 반면,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는 가능한 빨리 들은 내용을 반복할 때 화자의 지역적 방언과 발화상의 특징 또한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라고 구별한다. 다락원 (1994)은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라는 표현 대신 리피팅 (repeat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리피팅이란 기계적인 단순한 반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영어를 충실하게 재생하는 것으로 억양 변화, 음의 고저장단, 어감, 말투, 강조, 간격, 발음 등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따라 하는 것이다. 즉, 리피팅은 관사나 복수형 어미와 같은 세세한 점을 주의하고 화자의 기분이 되어 감정 표현까지 따라 하는 것으로 기존의 모방과는 차이가 있음을 언급한다.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라는 말은 “shadow”의 동사 뜻,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다”는 의미에서 나왔다. 즉,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란 화자의 말을 그대로 따라 다니는 것으로 화자가 말하는 속도와 거의 동일한 속도로 들리는 내용을 따라 하는 것이어서 “follow-up practice”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동시통역의 기초훈련 연습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며 화자의 발음, 리듬, 억양 등을 흉내 내면서 동시에 내용도 파악하는 것이다. 언어 수준에 따라서 청각 자료를 들을 때 영문 원고나 대본을 보면서 따라 읽는 방법도 가능한데, Sadowski (2003)는 듣기 대본의 활용 유무에 따라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를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

(shadow speaking)와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shadow reading)로 세분화한다.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는 듣기 대본을 보지 않고 들리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하는 방법이고,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는 듣기 대본을 보면서 청각 자료를 들으며 그대로 따라 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듣기 대본을 사용해서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 활동을 할 것이므로 지금부터는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영어 듣기 실력 향상을 위한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방법은 정해진 시간 안에 듣기 연습을 하는 것이므로, 학습자들은 청각 자료를 들으면서 많은 문장을 입으로 말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구어의 특징에 익숙해지고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 인지적 학습 전략을 구축시킬 수 있다 (Underwood, 1974). 또한 해당 화행 속에서 언어를 학습하게 하며 반복적으로 함께 쓰이는 단어의 연속, 즉 연어나 관용구 등을 익히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은 특정한 담화 상황 속에서의 언어적 기능과 지식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듣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4. 선행 연구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가 영어 듣기에 영향을 준다는 전제 아래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와 듣기 이해력과의 관계 및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따른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는 영어 원어민 화자가 발화하는 내용을 마치 상대모사를 하는 것처럼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소리 내어 읽는 것이므로 영어의 구어체 특징을 이해할 수 있고 반복 훈련을 통한 입력 및 산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발음 능력에도 영향을 주어 소리를 더욱 정확히 인지하게 되므로 영어 듣기 이해력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영어 듣기 이해력 향상 정도는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EFL 상황에서의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 방법이 영어 듣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Sadowski (2003)는 듣고 따라 하는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 방법과 듣기 대본을 보면서 듣고 따라 하는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방법 두 가지로 영어 듣기를 지도한 결과, 두 방법 모두 영어 듣기 이해력 및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켰고 두 방법의 효과 간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밝혀냈다.

Ishihara (2001)는 Tsukuba 대학교 신입생 144명을 대상으로 한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와 영어 듣기 능력과의 연구에서 Pearson 상관계수 0.639로 직접적인 정적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Tamai (1992)는 실험집단에게는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 지도를 하였고 통제집단에게는 단순히 따라 읽기 지도를 하였다. 연구 목적은 영어 듣기 능력, 영어

를 듣고 따라 읽는 능력, 영어 숫자를 들은 후 최대 기억 범위, 40개의 영어 단어를 가능한 빨리 소리 내어 읽는 발음 속도, 영어 어휘력 등에 대한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 지도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으며 연구 결과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 지도는 전 영역의 향상을 가져왔다.

EFL 상황에서의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 방법이 언어 수준에 따라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류계영 (2010)은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학습법이 학문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듣기 능력 및 한국어 학습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최소 1년 반 이상 한국어를 공부한 학습자 총 6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모든 수준별 집단에서 학습자들의 듣기 능력이 향상했고 상위 및 중위 실험집단의 듣기 능력 향상 폭이 하위 실험집단의 듣기 능력 향상 폭보다 컸다. 특히 상위 실험집단의 듣기 능력이 가장 크게 향상하였다.

김수경 (2008)은 중학교 1학년 238명을 대상으로 총 세 집단 (각각 듣기만 하는 집단, 들으면서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를 하는 집단, 듣기 대본을 보면서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를 하는 집단)으로 나누어 6주간에 걸쳐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가 듣기 및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지 살펴보았다. 집단 안에서도 각각 상·하 두 수준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했다. 특히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를 할 때 듣기 대본의 활용이 듣기 및 말하기 능력의 관계, 영어의 운율적 특징에 관한 인식 변화, 입력 여과 장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상·하위집단으로 나누어 언어 수준별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가 영어 듣기 및 말하기 능력, 영어의 운율적 특징에 관한 인식을 향상시켰고, 자신감 향상, 불안감 감소, 듣기와 말하기에 대한 선호도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의 효과성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의 효과는 듣기 대본을 제공했을 때 더욱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듣기 대본을 이용한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집단에서의 하위집단의 듣기 능력 향상 및 정의적 태도 변화가 상위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를 할 때 듣기 대본의 활용이 언어 수준이 하위집단인 경우에 더욱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가 듣기 능력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언어 수준 및 듣기 대본의 활용 유무에 따른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의 효과성 여부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Morley (1991)는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가 많은 정신적 용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언어 수준이 하위보다는 중·상위 학습자에게 맞는 학습 방법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Boyle (1995)은 발화 내용을 듣기 전에 미리 발화 내용을 그대로 담은 원고를 학습자들에게 배부하고 모르는 단어를 학습한 후, 의미 단락별 구분 청취를 하면서 짝을 지어 대화를 연습하고, 그 후 다시 청각 자료를 들으며 듣기 대본을 따라 읽도록 단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중위 학습자에게 적절하다고 했다. Sadowski (2003)는 듣기 대본의 활용 여부에 따라서 그림자처럼 따

라 말하기와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를 구분하였는데 두 방법 모두 듣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고 두 방법 간의 효과성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많은 고등학교 영어 교사들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듣기·어법·어휘·독해로 구성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외국어영역 (영어) 성적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 수업 시간이 독해나 어법, 어휘 지도에 사용되고 있어 듣기에 대한 지도 및 전략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방법은 교실 내에서의 활용도 및 접근성이 높은 듣기 학습 방법으로, 영어 듣기 이해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성 및 언어 수준에 따른 효과성이 검증된다면 학급당 언어 수준의 격차가 존재하는 교육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한 듣기 지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방법이 언어 수준에 따라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언어 수준을 상·하 두 집단으로만 구분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언어 수준을 상·중·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 효과성 유무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실제 교육현장에서 듣기 대본을 제시한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의 활용이 영어 듣기 이해력 향상에 효과적인지를 실증적으로 재확인하고자 하며, 특히 학습자들의 언어 수준 (상·중·하)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III. 연구 방법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가 영어 듣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재확인하기 위해서 부산시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16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특히,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언어 수준에 따라서 상위집단, 중위집단, 하위집단으로 구분하고 학습자들의 언어 수준에 따른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의 효과 정도를 알아보았다.

#### 1. 대상 및 기간

##### 1) 연구 대상

본 논문의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소재 G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4개 학급을 각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집단은 듣기 수업 시간에 듣기 대본을 활용한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방법을 사용하였고 통제집단은 듣고 문제에 답을 하는 전통적인 듣기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언어 수준의 차이에 따라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가 듣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두 번째 연구 과제와 관련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모두 상위집단, 중위집단,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학교에서는 학기말 영어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2개 학급을 묶어서 3수준 (상·중·

하)으로 나누어 영어 수업을 수준별로 동시 진행하고 있었다. 수행평가 항목에 듣기평가 성적이 100% 반영되기 때문에 학기말 영어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성적이 해당 학습자의 전반적인 영어 능력 및 듣기 능력별 반영 지수라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수준별 수업을 위해서 편성된 영어 집단을 그대로 반영하여 상위집단, 중위집단,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영어 수준별 수업은 상·중·하 동시 진행이므로 총 세 명의 교사가 수업을 실시하였고 그 중 본 연구자는 상위집단을, 2학년 담임 영어 교사는 중위집단을, 학습보조 인턴교사는 하위집단을 맡아서 실험을 진행했다. 동일한 교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 명의 교사에 의해서 수업을 진행한 점에서 교사에 따른 변인을 통제하지 못한 한계점을 상쇄하기 위해, 매 차시 및 매 과마다 수업 및 평가에 관해서 수준별 집단 간 교과 협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본 연구자가 매주 1시간 (50분 기준)씩 수준별 분반을 하지 않은 전체반 수업을 진행하였고, 그 중 약 10분을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에 따라 다른 듣기 지도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다음 표 1은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을 언어 수준별로 상위집단, 중위집단, 하위집단으로 구분한 것이다.

표 1  
연구 대상자 언어 수준별 인원 구성

집단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합계
상위집단	28	28	56
중위집단	27	27	54
하위집단	25	25	50
합계	80	80	160

표 1에서와 같이 언어 수준별 집단에 따른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 방법이 영어 듣기 이해력 향상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을 상·중·하 3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 2) 연구 기간

본 연구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진행되었다.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의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재 검증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에 관한 계획을 모색하였다. 또한 영어 듣기 사전·사후평가 자료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 3월 초에 영어 듣기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각 집단 간 분산의 동질성

검증을 위한 Levene's test를 사용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선정했으며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상위집단, 중위집단, 하위집단으로 분류하였다.

2011년 3월 중반부터 2011년 9월 초까지 여름방학 기간 (약 40일)을 제외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약 18주간 실험을 실시했으며, 수업 시간은 주당 3.5시간마다 약 10분씩 진행되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수준별 (상·중·하)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2011년 9월에 연구 결과를 처리하고 분석 및 검증하여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가 영어 듣기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고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 및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 2. 실험 설계

### 1) 자료 선정

영어 듣기 대본을 활용한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활동을 위해 고등학교 영어 I 교과서 (두산동아)의 Listen & Speak I, Listen & Speak II, Put it together와 교사용 지도서의 Copy & Go - Dictation, EBS 교육방송 영어 듣기 교재를 본 연구에서의 교수 자료로써 활용하였다.

영어 듣기 이해력 측정을 위해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평가 내용은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 주관 영어 듣기 능력 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 (영어)에서 출제된 유형으로 한정하고 각 참고서 및 문제집에서 평가 항목을 수집하였다. 또한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부산시 소재 인문계 B 고등학교 2학년 1개 학급 총 41명을 대상으로 평가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영어 듣기 사전·사후평가 자료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모두 0.9 이상으로, 내적 일관성이 있으며 수용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한 영어 듣기 사전·사후평가 자료는 측정 도구로서의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영어 듣기 사전·사후평가 자료는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가 학습자들의 영어 듣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실험 처치 전후에 실시되었다.

### 2) 자료 처치

본 연구는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가 영어 듣기 이해력과 학습자들의 언어 수준에 따른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영어 듣기 평가 성적 향상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해서 영어 듣기 사전·사후평가 자료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였다. 실험대상은 본 연구학교가 아닌 타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41명이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선정하기 위해서 영어 듣기 사전평가를 전체 학급에 실시하고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OVA)을 하였으며 각 집단 간 분산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서 Levene's test를 사용하였다.

실험 처치 전·후에 영어 듣기 사전·사후평가 자료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통한 양측검증을 실시하였다. t-test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영어 듣기 사전·사후 평가의 평균 비교 이외에도 각 집단 내의 언어 수준에 따른 영어 듣기 사전·사후평가의 평균 비교에도 사용되었다.

이상의 통계적 분석은 한글 SPSS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유의도 0.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미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 3. 수업 절차

본 연구는 효과적인 영어 듣기 지도 방법을 모색하고자 고안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동일한 듣기 자료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제시하였다.

통제집단은 듣기를 할 때 기존의 방식대로 듣고 질문에 답을 하거나 듣기 대본의 빈칸을 채워 넣는 반면, 실험집단은 지문을 들은 후에 듣기 대본을 보고 여러 차례 발화 연습을 한 후에 청각 자료에서 들리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읽도록 했다. 이때 듣기 대본을 보면서 읽도록 지도했으며, 점차 익숙해지면 듣기 대본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들리는 대로 따라 읽도록 격려했다.

영어 듣기 지문의 길이와 분량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 (영어)의 듣기 지문의 것보다 짧고 적게 선정했는데, 이는 영어 듣기 지문의 길이가 길고 분량이 많은 경우 학습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방법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담감을 갖게 될 우려를 덜기 위해서였다. 또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진도와 대·내외 평가 준비 등의 여러 교육 환경에서의 제반 요소 등으로 인해 영어 듣기에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던 점도 약 10분 분량으로 영어 듣기 지문의 길이와 분량을 조절한 이유 중 하나였다.

수준별 수업 교사들은 매 차시 전후에 수업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교수 자료는 본 연구자가 직접 준비하고 배부하였다. 본 연구학교에는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발화 내용을 저장하고 확인할 수 있는 어학실이 구비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모든 수준별 수업 교실에는 컴퓨터 설치 및 오디오 장치가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교수·학습 방법을 통한 영어 듣기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수준별 수업 교사들은 실험집단에게 교수 자료를 배부한 후 영어 듣기 CD를 재생하였다. 학습자들은 1차적으로 듣기 대본을 보지 않고 듣기만 했다. 그 후 듣기 대본을 보면서 모르는 단어나 관용구에 관해 교사와 함께 살펴보고 듣기 대본을 소리 내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어 보았다. 이 때 가급적 영어 원어인 화자가 발화하는 것을 최대한 흉내 내어 억양, 강세, 리듬, 속도, 감정 등을 따

라 하도록 했다. 다시 2차 듣기를 실시할 때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목소리를 따라 자연스럽게 발화해 보았다. 듣기 대본을 보면서 여러 차례 듣기와 말하기를 병행한 후 점차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면 최종적으로 듣기 대본을 보지 않고 들으면서 들리는 내용을 그대로 발화해 보도록 격려했다. 그러나 듣기 대본을 보지 않으면서 청각 자료를 따라서 발화하는 것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하나의 학습 방법으로만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매주 3.5시간 (2주 기준 7시간) 약 10분간씩, 총 18주간 진행되었다.

#### IV. 결과 및 논의

##### 1. 연구 과제 1

첫 번째 연구 과제는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를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영어 듣기 이해력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 유무가 영어 듣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었다.

먼저, 본 연구자가 작성한 영어 듣기 사전·사후평가 자료를 통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영어 듣기 이해력 향상 정도를 알아보았다. 여기서 사용된 측정 도구는 신뢰도 분석을 통해 내적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2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영어 듣기 사후평가에 대한 결과이다.

표 2  
집단간 영어 듣기 사후평가 결과

집단	구분	인원	평균	표준편차	t	p
실험	사후	80	53.56	22.85	-2.255	.025*
통제	사후	80	45.56	22.00		

\*  $p < .05$

표 2에 의하면, 실험집단의 사후평가 평균은 53.56점이고 통제집단은 45.56점으로 두 집단 평균 차이 검증을 위해 t-test를 사용하였다. Levene의 등분산 검증 결과 유의확률은 .666로서  $\alpha = .05$ 에서 두 집단의 분산이 같다는 가정을 기각하지 못하므로 두 집단의 등분산 가정에는 문제가 없었다. 등분산 가정이 된 경우, 양측검증에서 t-value가 -2.255이고 유의확률은 .025로 나타나  $\alpha = .05$ 에서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에 따른 영어 듣기 이해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 과제가 지지되었다. 즉,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를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영어 듣기 이해력의 향상 정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다음 표 3에서와 같이 집단간 영어 듣기 사전·사후평가 결과를 검증해 보았다.

표 3  
집단간 영어 듣기 사전·사후평가 결과

집단	구분	인원	평균	표준편차	t	p
실험	사전	80	46.94	18.87	-1.999	.047*
	사후	80	53.56	22.85		
통제	사전	80	45.69	20.29	.037	.970
	사후	80	45.56	22.00		

\*  $p < .05$

표 3에 의하면, 실험집단의 사전평가 평균은 46.94점이고 사후평가 평균은 53.56점이다. 실험집단의 영어 듣기 사전·사후평가 결과에 관한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27로서  $\alpha = .05$ 에서 실험집단의 사전평가 결과와 사후평가 결과의 분산이 같다는 가정이 기각되었다.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경우, t-value가 -1.999이고 유의확률이 .047로 나타나 실험집단의 영어 듣기 사전·사후평가 결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가 영어 듣기 이해력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평가 평균은 45.69점이고 사후평가 평균은 45.56점이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203으로서  $\alpha = .05$ 에서 통제집단의 사전평가 결과와 사후평가 결과의 분산이 같다는 가정을 기각하지 못하므로 등분산 가정에 문제가 없었다. 등분산 가정이 된 경우, 양측검증에서 t-value가 .037이고 유의확률은 .970로 나타나 통제집단의 사전평가 결과와 사후평가 결과의 분산이 같다는 가정은  $\alpha = .05$ 에서 기각되지 않았다. 즉, 통제집단의 사전평가 결과와 사후평가 결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 그림 1은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를 한 후 실험·통제집단 별로 영어 듣기 이해력의 향상 정도를 알아보기 쉽도록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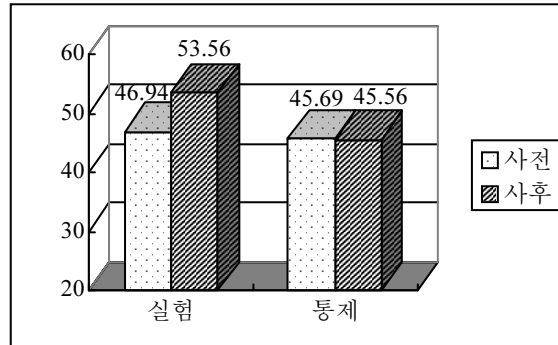


그림 1. 집단간 영어 듣기 사전·사후평가 결과 그래프.

그림 1에 의하면, 통제집단보다 실험집단에서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영어 듣기 이해력 향상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를 받은 집단이 기존의 영어 듣기 방법대로 지도를 받은 집단에 비해 영어 듣기 이해력이 향상된 것이다. 이는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가 영어 듣기 이해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 (Ishihara, 2001; Sadowski, 2003; Tamai, 1992)와 일치한다. 따라서 영어 듣기 대본을 보면서 듣는 내용을 따라 읽는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가 학습자들의 영어 듣기 성적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2. 연구 과제 2

두 번째 연구 과제는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가 영어 듣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이 언어 수준의 차이 (상·중·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었다. 선행 연구마다 언어 수준에 따른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의 효과 정도가 상이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훈련의 효과가 언어 수준에 따라 어떠한 질적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고, 수준별 차이를 크게 보이는 학교 영어 교육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영어 듣기 지도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먼저, 실험집단 내에서의 언어 수준별 결과 비교를 통해,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의 언어 수준별 효과 정도를 살펴보았다. 다음 표 4는 실험집단의 언어 수준별 영어 듣기 이해력 사전·사후평가 결과이다.

표 4

## 실험집단 언어 수준별 영어 듣기 사전·사후평가 결과

집단	수준	구분	인원	평균	표준편차	t	p
실험	상	사전	28	67.50	11.90	-3.972	.000*
		사후	28	80.36	12.32		
	중	사전	27	44.63	3.90	-2.633	.012*
		사후	27	48.15	5.74		
	하	사전	25	26.40	7.57	-1.570	.124
		사후	25	29.40	5.83		

\*  $p < .05$ 

표 4에 의하면, 상위 실험집단의 영어 듣기 사전평가의 평균은 67.50점이고 사후평가의 평균은 80.36점이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662로서  $\alpha = .05$ 에서 상위 실험집단의 영어 듣기 사전평가 결과와 사후평가 결과의 분산이 같다는 가정을 기각하지 못하므로 등분산 가정에 문제가 없다. 등분산 가정이 된 경우, 양측검증에서 t-value가 -3.972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나 상위 실험집단의 영어 듣기 사전·사후평가 결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가 상위집단에서 영어 듣기 이해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위 실험집단의 영어 듣기 사전평가의 평균은 44.63점이고 사후평가의 평균은 48.15점이다. 중위 실험집단의 영어 듣기 사전·사후평가 결과에 관한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14로서  $\alpha = .05$ 에서 중위 실험집단의 사전평가 결과와 사후평가 결과의 분산이 같다는 가정이 기각되었다.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경우, t-value가 -2.633이고 유의확률이 .012로 나타나 중위 실험집단의 영어 듣기 사전·사후평가 결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가 중위집단의 영어 듣기 이해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위 실험집단의 영어 듣기 사전평가의 평균은 26.40점이고 사후평가의 평균은 29.40점이다. 하위 실험집단의 영어 듣기 사전·사후평가 결과에 관한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90으로서  $\alpha = .05$ 에서 하위 실험집단의 사전평가 결과와 사후평가 결과의 분산이 같다는 가정이 기각되었다.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경우, t-value가 -1.570이고 유의확률이 .124로 나타나 하위 실험집단의 영어 듣기 사전평가 결과와 사후평가 결과의 분산이 같다는 가정은  $\alpha = .05$ 에서 기각되지 않는다. 즉, 하위 실험집단의 영어 듣기 사전평가 결과와 사후평가 결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 그림 2는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를 한 후 실험집단의 언어 수준별로 영어 듣기 이해력 향상 정도를 알아보기 쉽도록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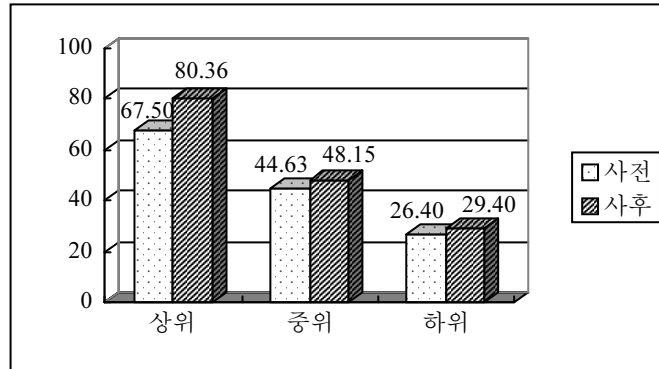


그림 2. 실험집단 언어 수준별 (상·중·하) 영어 듣기 사전·사후평가 결과 그래프.

그림 2에서처럼,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는 하위집단보다 상위집단과 중위집단에서 유의미한 영어 듣기 이해력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 후, 상위 및 중위 실험집단의 듣기 능력 향상 폭이 하위 실험집단의 듣기 능력 향상 폭보다 컸다는 결과 (류계영, 2010)와 일치하지만, 듣기 대본을 이용한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가 상위집단보다 하위집단인 경우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 (김수경, 2008)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 차이는 교사에 따른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 방법의 차이, 언어 수준에 따른 집단 선정 기준, 집단 내에서의 학습자들의 개인적인 언어 수준의 차이, 그리고 테스트 문항의 난이도 차이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가 영어 듣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은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영어 듣기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EFL 학습자들에 대한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가 영어 듣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것이다. 듣기를 할 때 듣기 대본을 소리 내어 여러 번 반복해서 읽도록 지도하고 특히 영어 원어민 화자가 발화하는 것을 최대한 모방하여 억양, 강세, 리듬, 속도, 심지어 감정까지도 따라 하도록 하여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에 따른 학습자들의 영어 듣기 이해력의 변화와 언어 수준별 영어 듣기 이해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설정된 연구 과제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9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확률이 .025로 나타나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를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영어 듣기 이해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의 영어 듣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이 언어 수준의 차이 (상·중·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95%의 유의수준에서 상위집단의 유의확률은 .000, 중위집단의 유의확률은 .012, 하위집단의 유의확률은 .124로 나타났다. 이는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교수·학습 방법이 하위집단에서보다 상위집단과 중위집단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결과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는 영어 듣기 이해력의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 언어 수준이 높은 상위집단과 중위집단의 영어 듣기 이해력에 매우 유의미한 향상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영어 듣기 지도에서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활동을 활용한 교수·학습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교육적 시사점은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지도가 영어 듣기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활동은 듣기를 위한 청취 도구만 있어도 진행할 수 있는 과업이므로 최첨단의 시청각 교구나 멀티미디어실 또는 어학실이 마련되지 못한 학교나 학급에서도 쉽게 활용 가능한 활동이다.

실제 교실 사용을 위한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활동은 다음처럼 활용할 수 있다. 먼저 듣기 내용을 들려준 다음, 주어진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한다. 그 후 학습자들에게 반복 듣기를 실시할 때 교과서 듣기 자료 또는 교사 제작 자료를 배부하여 단어, 구문, 문장 등의 단계적인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를 지도한다. 이 과정 중에 중요한 어휘 및 구문에 대한 학습을 병행할 수 있고, 언어 수준이 높은 학습자의 경우 표현을 암기하도록 격려 받을 수 있다.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를 수 차례 진행한 후, 소재 및 주제 등에 대해서 짝 활동 또는 그룹 활동으로 논의를 한 후 발표를 하는 방법도 시도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듣기 대본을 보지 않고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를 하도록 지도하여, 개별 학습자들의 실제 발화 속도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겠다. 이와 같이 학습자들의 영어 듣기 이해력 향상을 위한 듣기 교수·학습 방법으로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활동을 실제 수업에 적용해 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수경. (2008). *Effect of repeated shadowing in Korean EFL classrooms: Focusing on L2 listening and speaking skills*.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서울.
- 다락원 편집부. (1994). *영어 리피팅 입문*. 서울: 다락원.

- 류계영. (2010).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가 한국어 학습자의 듣기 능력 향상 및 학습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Boyle, E. R. (1995). Shadow Reading. In D. Nunan & L. Miller (Eds.), *New ways in teaching listening* (p. 123). Bloomington, Illinois: Pantagraph Printing.
- Brown, H. D. (200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5th ed.). White Plains, NY: Pearson Education.
- Carrell, P., & Eisterhold, J. (1987). Schema theory and ESL reading pedagogy. In M. Long, & J. Richards (Eds.), *Methodology in TESOL: A book of readings* (pp. 218-232). Singapore: Harper & Row Publishers.
- Clark, H., & Clark, E. (1977). *Psychology and language: An introduction to psycholinguistic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Ishihara, Tsuyoshi.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Shadowing and Listening Comprehension of Japanese EFL Learn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Tsukuba, Tsukuba.
- Krashen, S. (1985). *The input hypothesis: Issues and implications*. London: Longman.
- Krashen, S. (1989). 'We acquire vocabulary and spelling by reading: Additional evidence for the input hypothesis.' *Modern Language Journal*, 73(2), 440-460.
- Kuhl, P. K., & Meltzoff, A. N. (1996). Infant vocalizations in response to speech: Vocal imitation and developmental chang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100(4), 2425-2438.
- Morley, J. (1991). The pronunciation component in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TESOL Quarterly*, 25(3), 481-515.
- Morley, J. (2001). Aural comprehension instruction: Principles and practices. In M. Celce-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3rd ed.) (pp. 69-85). Boston, Mass.: Heinle & Heinle.
- Nord, J. R. (1980). Developing listening fluency before speaking: An alternative paradigm. *System*, 8, 1-22.
- Nunan, D. (1998).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Boston, Mass.: Heinle & Heinle.
- Nye, P. W., & Fowler, C. A. (2003). Shadowing latency and imitation: The effect of familiarity with the phonetic patterning of English. *Journal of Phonetics*, 31(1), 63-79.
- Pimsleur, P., & Quinn, T. (Eds.). (1971) *The psychology of second language lear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hards, J. (1983). Listening comprehension: Approach, design, procedure. *TESOL Quarterly*, 17, 219-239.
- Rivers, W. M. (1980). Hearing and comprehending. *English Teaching Forum*, 18(4), 16-19.

- Rivers, W. M. (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st, M. (1990). *Listening in language learning*. London: Longman.
- Rumelhart, D. E. (1980). Schemata: The building blocks of cognition. In R. J. Spiro & W. F. Brewer (Eds.), *Theoretical issues in reading comprehension* (pp. 33-5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adowski, W. J. Jr. (2003). *Evaluating the intelligibility and naturalness of shadowed speech and exploring verbal shadowing as an effective method of enrolling in a speech recognition syste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Orlando.
- Swain, M. (1985). Communicative competence: Some roles of comprehensible input and comprehensible output in its development. In S. Gass & C. Madden (Eds.) *Inpu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235-253). Rowley, MA: Newbury House.
- Tamai, K. (1992). The effect of follow-up on reading comprehens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ollow-up ability and reading comprehension. *Step Bulletin*, 4, 48-62.
- Underwood, G. (1974). Moray vs. the rest: The effects of extended shadowing practice.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26, 368-372.
- Weaver, C. (1972). *Human listening: Process and behavior*. New York: Bobbs-Merrill.

전은경

구덕고등학교

617-841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81

Tel: (051) 320-9200/ H. P.: 010-8459-1979

Email: jek1230@hanmail.net

Received 13 October 2011

Revised 29 November 2011

Accepted 13 December 2011